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4, 1061 - 1075

## 위험추구 소인과 도박동기 및 도박 심각도의 관계<sup>†</sup>

채 규 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이 흥 표<sup>‡</sup>  
한국마사회 심리상담센터

본 연구에서는 위험추구 성향이 도박의 심각도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위험추구 소인과 도박동기가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 문제성 도박 대 병적 도박을 얼마나 잘 변별하여 주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위험추구 성향은 사교성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를 변별하여 주었으나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자를 변별하여 주지는 못하였다.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변별하는 데는 금전동기와 흥분동기만의 설명력이 유의미하였으며 위험추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병적 도박행동에는 위험추구 특성보다 금전적 이득이나 정서적 긴장의 추구하고 같은 동기의 영향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주요어 : 위험추구, 도박동기, 도박심각도

습관적이거나 과도한 도박 행동은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 비추어 볼 때 비상식적인 “위험 행동”으로 지각되기 쉬우며 병전부터 성격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만이 도박에 빠진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도박자들은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도 승산에 기대를 걸고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00)” 걸기 때문이다. 도박이 위험행동이라면 위험을 추구하거나 감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들이 도박 행동의 소

<sup>†</sup> 이 논문은 2003년도 이세웅 박사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흥표,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9-1 한국마사회 심리상담센터, Tel: 031-622-5999, E-mail: youbefree@naver.com

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도박이나 위험행동을 추구하거나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충동성과 감각추구, 성격장애 등의 성격적 소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병적 도박자들의 병적 특성은 충동적이며 충동성은 병적 도박의 심각도와 비례한다(Blaszczyński & Steel, 1998). 병적 도박자들은 욕구만족 지연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즉시적 만족을 추구한다(Petry & Casarella, 1999). 도박을 접하기 전 청소년 초기에 충동성 정도를 평가하고 후기의 도박 상태를 평가한 결과, 도박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가장 낮았고 사교성 도박자들이 그 다음이었으며 문제성 도박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Vitaro, Arseneault, & Tremblay, 1997). 감각추구 성향(sensation-seeking) 역시 도박에 참여하거나 지속하게 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병적 도박자는 새롭고 강하거나 복잡한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으며(Kuley, 1986) 손실 위험이 더 큰 내기를 걸고(Waters & Kirk, 1968) 베팅 금액이 크다(Zuckerman, Bone, Neary, Mangelsdorf, & Brustman, 1972). 병적 도박자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위험하며 모험적인 일에 쉽게 도전하며, 이 때 도박이나 알코올은 감각추구 성향의 한 표현으로 보인다(Zuckerman, 1985).

그러나 병적 도박자들이 결코 충동적이거나 감각추구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많다. 병적 도박자와 정상인간에 충동성이나 감각추구의 차이가 없으며(Allcock & Grace, 1988; Lyon, 1985; Stolz, 1990). 병적 도박자와 알코올중독자의 감각추구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없었다(Blaszczyński,

1999; Streets, 1990). 이홍표, 김정수, 고효진 및 김갑중(2003)의 연구에서도 병적 도박자와 알코올 중독자간에 충동성은 차이가 있었지만 감각추구의 차이는 없었다. Chiu(1997)는 감각추구가 병적 도박을 결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감각추구의 개념적 정의가 불명확하며, 감각추구와 위험추구 간의 개념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병적 도박자들이 결코 충동적이거나 감각추구적이지 않으며 위험추구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Chiu, 1997; Powell, Hardoon, Derevensky, & Gupta, 1999)가 제기되었다. 위험추구 성향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거나 접근하려는 일반적인 의지 혹은 특성으로 정의된다(Knowles, Cutter, Walsh, & Casey, 1973). 위험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가설적인 도박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걸었고 훨씬 더 위험한 베팅을 한다(Knowles, 1976a). 또한 주식을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더의 베팅 성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Golin, 2001). 도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적 도박자와 사교성 도박자 간에 감각추구 성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감별해 준 것은 위험감수 성향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병적 도박자들이 문제성 도박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시사하였다(Powell et al, 1999).

하지만 중독을 일으키는 특정한 성격유형(addiction-prone personality)이 있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고 있다(Herscovitch, 1994; Davis, 1996). 반면에 사용의 기회(Davis, 1996), 금전에

대한 갈망이나 긴장, 이완 및 정서적 자극으로부터의 탈출, 자존감의 보상 같은 동기와 (Blaszczynski & McConaghy, 1989; Brown, 1986; Jacob, 1987; Kusyszyn, 1990; Raghunathan & Pham, 1991) 잘못된 인지적 오류들이(Gilvoich, 1983; Ladouceur & Walker, 1996, Moore & Ohtsuka, 1999; Toneatto, 1999) 도박의 심각도나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변별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위험추구와 같은 성격적 특성보다는 금전추구, 각성추구, 낮은 자존감의 보상과 같은 금전, 흥분, 회피와 같은 동기적 요인들이 도박 심각도를 더 잘 예측하거나 사교성 도박과 문제성 도박,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을 구분하여 주는 요인일 것이다. 또한 위험추구와 동기가 상호작용하여 도박의 관여도를 악화 혹은 경감시키거나 사교성 도박과 문제성 도박,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을 변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1) 위험추구 척도를 타당화하고 2) 도박에 참여하거나 탐닉하고 있는 도박자를 대상으로 하여 병적 도박자가 문제성 도박자, 사교성 도박자보다 위험감수 성향이 강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위험추구적 성향과 도박동기 중에서 사교성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변별하는데 영향력이 강한 변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도박문제의 수준을 변별하는데 있어 위험추구와 도박동기 간에 상호작용은 없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연구 1 : 위험추구 척도의 타당화

### 연구대상

서울에 위치한 3개 대학에서 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64.2%(N=154)는 남성, 35.8%(N=86)는 여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23.96세(SD=2.20)였다.

연구대상자중 도박 문제가 없는 사람(SOGs=0)은 188명(78.3%)이었고 경한 수준의 문제가 있는 사람(SOGs=1,2)은 44명(18.3%)이었다. 문제성 도박자(SOGs=3,4)는 4명(1.7%), 병적 도박자(SOGs=5 이상)는 4명(1.7%)이었다.

### 측정도구

Knowles 등(1973)의 위험추구 척도(이하 RTQ ; Risk-Taking Questionnaire)를 번안, 사용하였다. RTQ는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에 접근하려는 동기 또는 성향을 측정하는 단일척도이다. Knowles(1973b)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5, 감각추구 척도와 의 상관은 .73로 안정된 외적 타당도를 보였다.

### 분석절차

RTQ 20문항을 번안한 후 문항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적절성 평가에서는 각 문항마다 3개 번안 문항을 제작한 후 10명의 대학원생 중 30% 이상에서 문항내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동의한 20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문항-총점상관을 구하

여 그 값이 .4 이하인 문항은 해당 척도에서 제거한 후 주축분해법, 사각회전을 실행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고유근(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을 비교,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모수추정 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따랐으며 부합도 지수는 표준 적합지수(NFI), 증분 적합지수(IFI), 비교 적합지수(CFI), 비표준 적합지수(NNFI), 원소간 근접오차(RMSEA)를 이용하였다.

### 결과 및 논의

표본 적합도에 대한 Kaiser's Meyer Olkin measure는 .892로 유의하였고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는 .001( $\chi^2=1258.33$ )로 변인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항-총점 상관이 .4 이하인 문항을 제거한 결과, 20문항에서 15문항이 채택되었다. 15문항으로 사각회전 주축분해법을 실행한 결과, 고유근이 1이상인 요인이 3개가 산출되었으며 이들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55.98%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7문항으로 37.46%였으며 규칙을 깨뜨리거나 위기상황이나 거칠고 자극적인 행위를 즐기고 선호하는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는 6문항으로 10.41%를 설명하였다. 요인 3에는 2문항이 부하되어 8.10%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요인 2와 3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2는 “웬만하면 위험한 일은 피하려 한다”, “후회할 것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것이 낫다”, “나는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은 피하는 편이다”는 등으로 모두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추구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6

문항 모두 역채점 문항에 속하였다. 요인 3은 “나는 모험을 즐기는 편에 속한다”, “나는 모험은 피해 가는 사람에 속한다”는 안전을 추구하거나 회피적인 안전에 대한 자기개념이었다.

Knowles 등(1973)은 RTQ가 위험추구 성향을 측정하는 단일 척도임을 주장하면서도 명확한 요인구조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Golin(2001)의 연구에서는 사각회전을 통한 요인 분석 결과, 변량의 87%가 두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의 연구에서 첫 번째 요인은 10문항으로 무모함 혹은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예 : 나는 위험을 즐기는 사람에 속한다) RTQ-위험(risk)으로 명명되었으며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두 번째 요인에 높게 부하된 4개 문항은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예 :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낫다) RTQ-통제(control)로 명명되었으며 내적 일치도는 .72였다(Golin, 2001). 그러나 Golin의 연구에서 두 번째 요인에 부하된 4개의 문항은 위험통제라기보다는 역채점 문항이 합산될 것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요인에 부하된 문항을 살펴보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는 편이 낫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에 속한다”, “후회하기 보다는 안전한 것이 낫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야 그 일을 즐길 수 있다”는 역채점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요인내용 특성과 이전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볼 때 요인 2와 3은 역채점 문항이 산출되어 나온 것이며 실제로는 Knowles가 주장한 것처럼 단일개념을 측정하는 단일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근거 하에 요인 수를 1로 지정하여

주축분해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문항 모두 요인 부하량이 .4 이상이였으며 1요인이 변량의 37.48%를 설명하였다. 최종 15문항의 Cronbach  $\alpha$ 는 .88로 내적 일치도는 양호하였다(표 1).

또한 Golin(2001)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험추구 척도를 단일개념으로 본 1요인 모형(모형 1)과 4문항을 위험통제로 개념화한 2요인 모형(모형 2)를 구성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두 모형간에 적합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1요인 모형의( $\chi^2=340.16, p<.001$ ) 상대적합도 지수 RMSEA는 .11으로 .08의 기준에 부족하였으나 NFI, IFI, CFI는 각각 .945, .958, .958, .944로 선택 기준에 적합하였다. 2요인 모형의 경우에도( $\chi^2=349.06, p<.001$ ) 적합도 지수 NFI,

IFI, CFI는 각각 .945, .958, .958, .943으로 1요인 모형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RMSEA도 .11로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1요인 모형에 비하여 설명량이나 적합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명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에 따라 1요인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시사된다.

## 연구 2 : 위험추구와 도박동기 및 도박 수준의 변별력

### 연구대상

경마장 126명(52.7%), 카지노 90명(37.7%), 불

표 1. 위험추구척도(RTQ)의 요인분석과 내적 일치도

문항	요인부하량
위험한 일을 즐기거나 모험을 무릅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716
웬만하면 위험한 일은 피하려 한다.*	.670
나는 모험을 즐기는 편에 속한다.	.665
후회할 것을 하기 보다는 안전한 것이 낫다.*	.654
대개는 모험은 하지 않고 사는 편이 낫다.*	.610
나는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은 피하는 편이다.*	.586
나는 다소 기질이 거친 사람이 좋다.	.580
때로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상황을 몰고 가 그 묘미를 즐긴다.	.565
간혹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좋아한다.	.561
나는 모험은 피해 가는 사람에 속한다.*	.552
이따금씩 자극적이고 짜릿한 게임이나 놀이를 즐긴다.	.523
속도광과 차를 타느니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495
정해진 규칙을 깨뜨리면 더 특별한 재미가 있다.	.491
행동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알아보고 검토해 보는 것이 최선이다.*	.489
대부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낫다.*	
고유근	5.62
설명변량(%)	37.48
Cronbach $\alpha$	.88

\* : 역채점 문항

법 포커 및 화투 도박으로 법적 판결을 받고 교육 중인 23명(9.6%)에게 참여를 의뢰하여 총 239명이 참여하였다. 남성 206명(86.2%), 여성 33명(13.8%)였으며 평균연령은 39.24세(SD= 8.21)이었다. 남성의 연령은 39.49(SD=8.07), 여성의 연령은 37.76(SD=8.95)로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는 없었다.

SOGS 기준에 의거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 도박자는 20명(8.4%, SOGS=0), 경한 수준의 도박자는 33명(13.8%, SOGS=1,2), 문제성 도박 33명(13.8%, SOGS=3,4)이었고 병적 도박자는 153명(64.0%, SOGS=5 이상)이었다.

#### 측정도구

##### K-South Oaks Gambling Screen

병적 도박의 감별과 도박의 심각도는 사우스오크스 도박 척도(SOGs, Leisur & Blume, 1987)에 의해 평가하였다. SOGS는 병적 도박의 진단 및 도박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가장 타당하고 신뢰로운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Blaszczyński & Steel, 1998; Ladouceur, Sylvain, Letarte, Giroux, & Jacques, 1998). Lesieur & Blume(198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7,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이었다. 최완철, 김경빈, 오동열 및 이태경(2001)의 국내 표준화 예비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5였으며 병적 도박의 최적 절단점수는 .5였다.

##### 5요인 도박동기 척도

도박동기 척도는 35문항, 5점 척도로 사교동기, 유희동기, 회피동기, 흥분동기, 금전동기의 5요

인으로 이루어져 있다(이홍표, 2004). 이홍표의 연구에서 도박 동기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2였으며 도박자를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에서 5가지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사교동기 .83, 유희동기 .83, 흥분동기 .89, 회피동기 .90, 금전동기 .87이었다.

#### 분석절차

위험추구가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SOGS 기준에 따라 사교성 도박, 문제성 도박, 병적 도박 수준을 분류한 후 도박수준에 따른 위험추구 의 차이를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위험추구 성향을 상위 30%, 하위 30%로 구분한 후 위험추구의 수준에 따른 도박빈도와 금액 등 도박행동의 차이를  $\chi^2$  검증하였다.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 문제성 도박 대 병적 도박의 변별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 문제성 도박 대 병적 도박으로 구분한 후 단계별 투입을 통한 이원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실행하였다.

#### 결 과

위험추구 소인이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도박 수준에 따른 위험추구 소인의 차이를 회귀분석과 변량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 위험추구는 도박문제의 심각도에 대하여 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Beta=.28$ ,  $R^2=.08$ ,  $p<.001$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은 사교성 도박보다 위험추구 소인이 높았다,  $F=11.83$ ,  $p<.001$ .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병적 도박자가 문제성 도박보다 위험추구 소인이 높으며 위험추구가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감별해 준다는 Powell 등(2001)의 연구는 지지되지 않았다(표 2).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고 변량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이므로 성별에 따른 위험추구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남성의 평균 26.97(SD=8.39), 여성의 평균 24.53(SD=8.07),  $F=2.23$ , ns).

위험추구 소인이 낮은 하위 30%와 높은 상위 30% 집단으로 위험추구 수준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1일 평균 금액과 월별/주별 빈도 등 도박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100만원 이상의 고액 베팅에서 낮은 위험추구자들은 22%, 높은 위험추구자들은 37.1%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추구자들의 베팅금액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5.11$ , ns. 도박빈도에서도 낮은 위험추구자들

은 1개월간 평균 10회 이상 도박 빈도가 6.3%, 1주간 5회 이상 도박 빈도는 4.2%였음에 비하여 높은 위험추구자들은 월간 13.1%, 주간 10.4%로 2배 이상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1.54$ , ns,  $\chi^2 = 2.51$ , ns.

이러한 결과들은 과도한 베팅 금액이나 빈도에는 위험추구 소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위험추구의 도박 심각도에 대한 설명력이 8%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위험추구 성향과 사고동기는 .16, 유희동기와의 .14의 약한 상관이 있었으며( $p < .05$ ) 흥분동기 .46, 금전동기 .39, 회피동기 .33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p < .01$ ). 이로 볼 때 위험추구 소인과 같은 특성 외에 도박동기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도박 문제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위험추구가 흥분, 회피, 금전동기 등의 동기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도박문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도박수준에 따른 위험추구 성향 비교

	사교성 도박	문제성 도박	병적 도박	MS	F	Scheffe
위험추구	21.75(7.03)	27.77(7.15)	27.91(8.37)	564.22	8.74***	사 < 문=병

\*\*\* :  $p < .001$ , 사=사교성 도박, 문=문제성 도박, 병=병적 도박

표 3. 위험추구에 따른 도박행동 비교

1일 평균 도박금액	10만원 미만	11-50만원	51-100만원	100만원 이상	$\chi^2$
낮은 위험추구	15(30.0%)	19(38.0%)	5(10.0%)	11(22.0%)	5.11 ns
높은 위험추구	20(22.5%)	23(25.8%)	13(14.6%)	33(37.1%)	

  

구분	도박빈도/월			$\chi^2$	도박빈도/주			$\chi^2$
	5회 미만	5-10회	10회 이상		1-2일	3-4일	5일 이상	
낮은 위험추구	26(54.2%)	19(39.6%)	3(6.3%)	1.54 ns	18(75.0%)	5(20.8%)	1(4.2%)	2.51 ns
높은 위험추구	41(48.8%)	32(38.1%)	11(13.1%)		27(56.3%)	16(33.3%)	5(10.4%)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 문제성 도박 대 병적 도박을 가장 잘 변별하여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위협추구와 동기간의 상호작용이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 문제성 도박 대 병적 도박을 변별하여 주는지 알아보았다.

표 4를 보면 먼저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의 변별율을 비교한 결과, 위협추구 단독으로 76.2%의 판별율을 보였으며 설명력은 11%였다,  $Wald=20.54, p<.001$ . 하지만 동기의 단계별 투입

결과, 금전동기, 유희동기, 흥분동기의 변별율이 86.2%, 설명력은 각각 29%, 33%, 36%로 도박동기의 설명력이 위협추구 소인에 비하여 높았다,  $Wald=39.01, p<.001$ ,  $Wald=10.00, p<.01$ ,  $Wald = 31.97, p<.001$ . 사교동기와 회피동기는 탈락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위협추구에 부가하여 위협추구와 금전동기( $Wald=31.20, p<.001$ ), 위협추구와 유희동기( $Wald=8.04, p<.01$ ), 위협추구와 흥분동기( $Wald=6.81, p<.01$ )간에 유의한 효과가 있어 위협추구와 금전, 유희, 흥분동기의 상호작용이 사교성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의 변별 비교

변인	$R^2$	Beta	Wald	p	판별율
위협추구	.11	.104	20.54	.000	76.2%
금전동기	.29	.303	39.01	.000	80.5%
유희동기	.33	-.198	10.00	.000	84.3%
흥분동기	.36	.147	8.34	.004	86.2%
위협추구 × 금전동기	.32	.012	31.21	.000	83.3%
위협추구 × 유희동기	.34	-.008	8.03	.005	84.3%
위협추구 × 흥분동기	.37	.006	6.81	.009	85.7%

문제성 =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을 포함.

표 5.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에 대한 위협추구와 도박동기의 상호작용

		사교성 도박	문제성 도박	$\chi^2$	p
낮은 금전동기	낮은 위협추구	50.7%(36)	49.3%(35)	7.44	.009
	높은 위협추구	24.4%(10)	75.6%(31)		
높은 금전동기	낮은 위협추구	8.1%( 3)	91.9%(34)	5.51	.044
	높은 위협추구	0.0%( 0)	100.0%(66)		
낮은 흥분동기	낮은 위협추구	40.0%(32)	60.0%(48)	13.59	.000
	높은 위협추구	8.9%( 4)	91.1%(41)		
높은 흥분동기	낮은 위협추구	24.1%( 7)	75.9%(22)	3.37	ns
	높은 위협추구	9.7%( 6)	90.3%(56)		
낮은 회피동기	낮은 위협추구	37.1%(26)	62.9%(44)	4.07	ns
	높은 위협추구	18.4%( 7)	81.6%(31)		
높은 회피동기	낮은 위협추구	33.3%(13)	66.7%(26)	16.59	.000
	높은 위협추구	14.8%(16)	85.2%(92)		

도박 대 문제성 도박을 변별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판별율의 크기는 위험추구 단독에 비하여 9.5% 증가하였다.

동기와 위험추구간의 작용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낮은 금전동기 수준에서는 위험추구가 낮을 때 사교성 도박과 문제성 도박의 비율이 50.7% 대 49.3%이다. 반면에 위험추구가 높으면 그 비율이 24.4% 대 75%로 변화한다. 즉 금전동기가 낮아도 위험추구 소인이 높으면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이 3배 가량 증가한다. 또한 금전동기가 높으면 위험추구가 낮아도 8.1%대 91.9%로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며, 위험추구와 금전동기가 모두 높은 경우에는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홍분동기와 위험추구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홍분동기가 낮은 경우에는

는 위험추구 소인이 낮으면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이 40% 대 60%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위험추구 성향이 높아지면 흥분동기가 낮아도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이 8.9% 대 91.9%로,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이 10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흥분동기가 높은 경우에는 위험추구가 강해짐에 따라 사교성 도박자가 줄고(24.1%에서 9.7%) 문제성 도박자가 증가하였으나(75.9%에서 90.3%)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회피동기에서도 회피동기가 낮은 집단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위험추구가 낮으면 사교성 도박 대 문제성 도박의 비율이 37.1% 대 62.9%임에 비하여 회피동기가 낮아도 위험추구가 높으면 18.4% 대 81.6%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회피동기와 위험추구가 모두 높은 집단에서는 사교성 도박자가 14.8%, 문제성 도박자가

표 6.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의 판별 비교

변인	R <sup>2</sup>	Beta	Wald	p	판별율
금전동기	.05	.107	7.03	.008	82.0%
홍분동기	.08	-.095	5.67	.017	82.0%
위험추구 × 금전동기	.01	.002	4.12	.042	82.6%
위험추구 × 홍분동기	.03	-.003	8.40	.004	82.6%

표 7. 문제성 도박 대 병적 도박에 대한 동기와 위험추구의 상호작용

		문제성 도박	병적 도박	χ <sup>2</sup>	p
낮은 금전동기	낮은 위험추구	25.7%( 9)	74.3%(26)	.09	ns
	높은 위험추구	22.6%( 7)	77.4%(24)		
높은 금전동기	낮은 위험추구	11.8%( 4)	88.2%(30)	.21	ns
	높은 위험추구	15.2%(10)	84.8%(56)		
낮은 홍분동기	낮은 위험추구	16.7%( 8)	83.3%(40)	.07	ns
	높은 위험추구	14.6%( 6)	85.4%(35)		
높은 홍분동기	낮은 위험추구	22.7%( 5)	77.3%(17)	.10	ns
	높은 위험추구	19.6%(11)	80.4%(45)		

85.2%로 회피동기가 높고 위험추구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사교성 도박자는 1/2 가량 줄고 문제성 도박자는 증가한다.

다음으로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에 대한 변별력을 비교한 표 6의 결과를 보면 위험추구의 변별력은 탈락하였으며 금전동기와 흥분동기 등 동기적 요인의 변별효과만이 유의하였다,  $Wald=7.03, p<.01., Wald=5.67, p<.05$ . 설명력의 크기는 5%, 8%로 크게 높지 않았다. 위험추구와 금전동기, 위험추구와 흥분동기 간에는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었으나,  $Wald=.412, p<.05., Wald=8.40, p<.01$ , 변별율이 0.6%의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표 7에서 금전동기와 흥분동기 및 위험추구의 작용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금전동기가 낮은 경우 위험추구의 정도에 관계없이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의 비율이 유사하였고( $\chi^2=.09, ns$ ) 이는 금전동기가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chi^2=.21, ns$ ). 흥분동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chi^2=.07, ns, \chi^2=.10, ns$ ). 위험추구가 금전 및 흥분동기와 상호작용하여 0.6%라는 약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변별하거나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위험추구 척도를 타당화하고 병적 도박자가 문제성 도박자나 사교성 도박자보다 위험감수 성향이 강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위험추구 성향과 도박동기 중 사교성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

자를 가장 잘 변별하여 주는 변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위험추구 척도의 타당화 결과, 위험추구 척도는 위험 추구 성향을 측정하는 단일개념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총 15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위험추구 척도의 공통요인 설명변량은 37.48%, 내적 일치도는 .88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둘째로 위험추구는 도박문제의 심각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병적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는 사교성 도박자보다 위험추구 성향이 높았다. 그러나 병적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병적 도박자가 문제성 도박자보다 위험추구 성향이 높고 위험추구 성향이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잘 감별하여 준다는 Powell 등(2001)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아울러 위험추구 수준에 따른 도박빈도와 금액 등 도박 행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에 100만원 이상 고액의 베팅 금액에서는 낮은 위험추구자들이 22.0%, 높은 위험추구자들은 37.1%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월 10회 이상, 주 5일 이상의 과도한 도박빈도에는 6.3% 대 13.1%, 4.2% 대 10.4%로 높은 위험추구자들이 낮은 위험추구자들보다 2배 정도 높은 빈도를 보여, 과도한 도박빈도와 금액에는 높은 위험추구 성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었다.

셋째로 위험추구 성향에 비하여 금전, 흥분, 유희동기 등의 도박동기가 사교성 도박과 문제성 도박을 더 잘 변별하여 주는 변인이었으나 위험추구 소인도 사교성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를 유의하게 변별하여 주었다. 예컨대 위험추구 성향

이 높으면 금전동기나 회피동기, 흥분동기가 낮아도 문제성 도박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위험추구 성향과 금전동기가 강한 집단은 문제성 도박자로 판별 가능하였으며, 흥분동기나 회피동기와 더불어 위험추구 성향이 클 때 문제성 도박자일 가능성도 높았다. 결론적으로 사교성 도박과 문제성 도박을 변별하거나 사교성 도박자가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하는 데는 위험추구 소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흥분, 금전, 회피 등의 동기와 함께 작용하거나 동기의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추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시사된다.

하지만 위험추구는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변별하여 주지는 못하였으며 금전동기와 흥분동기의 설명력만이 유의하였다. 위험추구가 금전 및 흥분동기와 상호작용하여 0.6%라는 약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동기에 상관없이 문제성 도박자 이상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문제성 도박자로부터 병적 도박자를 변별하거나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이는 위험추구 성향이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잘 감별하여 준다는 Powell 등(2001)의 주장을 다시 한번 기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건대 안전보다는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도박에 탐닉하거나 문제성 도박자로 발전할 소인이 높을 것으로 시사된다. 위험추구자들이 높은 위험수준을 선호하는 이유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Knowles, 1976c).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들 역시 금전적 이득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경제적 손실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이로 인해 도박을 지속할 수 있다. 도박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대학생들

은 도박 뿐 아니라 위험한 운전을 즐기며, 흡연량이 많고, 보다 여러 가지 행동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Knowles, 1973). 도박을 접하기 이전부터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즐기는 성격적 취약성은 도박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험행동에 심취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게임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익숙해지면서 위험추구적인 성향이 높아진다는 주장(Ellia & Jacobs, 1993)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많은 도박자들은 게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금액이나 빈도에 무감각해지며 계속 베팅 액수가 증가하거나 무모한 베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위험추구적인 성향으로 인해 도박에 탐닉할 위험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도박 행동의 결과인지 규명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성격적 소인이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 병적 도박으로 발전하는 데는 성격적 소인보다 긴장에 대한 추구나 낮은 자존감의 보상, 금전적 갈망과 같은 동기가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많은 도박자들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지속하는 이유는 강렬한 자극이나 우울감의 회피 혹은 도박판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Blaszczynski & McConaghy, 1989; Brown, 1987). 이러한 동기들은 도박에 개입되기 이전부터 잠재해 있던 소인일 수도 있지만 도박에 개입된 이후 생성 혹은 악화되는 요인일 수도 있다. 많은 도박자들이 도박에 개입되면서 손실과 추격매수(chasing)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Lesieur,

1984) 그 결과로 절망적 재정상태에 빠지거나 거짓말과 이혼, 실직 등 심각한 재정적, 가정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다. 반면에 도박은 단기간에 강렬한 자극과 큰돈을 딸 가능성을 제공하며 도박은 이 때 재정적 손실과 상실된 명예를 일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수단으로 지각된다. 도박자의 합리적인 문제해결 시야는 더욱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추구 소인 뿐 아니라 충동성과 감각추구 혹은 다양한 성격특성들이 평가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성격특성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도박에 고유한 경제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도박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포함되지 못하였는 바, 도박행동과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평가방식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2000). 도박.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d0366b](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d0366b)>.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 이홍표. (2004) 5요인 도박동기의 검증과 도박동기가 도박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9, 555-568.
- 이홍표, 김정수, 고효진, 김갑중. (2003). 병적 도박의 충동성과 감각추구 : 알코올중독과의 비교. *신경정신의학*, 42, 89-95.
- 최완철, 김경빈, 오동열, 이태경. (2001).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도박 검사 표준화에 대한 예비연구. *중독정신의학*, 5, 46-52.
- Allcock, C. C., & Grace, D. M. (1988). Pathological gamblers are neither impulsive nor sensation-seeker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2, 307-311.
- Blaszczynski, A. (1999). Pathological gambling and obsessive-compulsive spectrum disorders. *Psychological Reports*, 84, 107-113.
- Blaszczynski, A., & McConaghy, N. (1989). Anxiety and/or depression in the pathogenesis of addictive gamb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4, 337-350.
- Blaszczynski, A., & Steel, Z. (1998). Impulsivity, personality and pathological gambling severity. *Addiction*, 93, 895-905.
- Brown, R. I. (1986). Arousal and sensation seeking components in the general explanations of gambling and gambling ad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21, 1001-1016.
- Chiu, J. W. (1997). *Predictors of Gambl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exas Tech University.
- Davis, P. E. (1996) From toads to toddlers: An overview of addictive behavior. In A. Bonner(Ed.) *Addictive Behavior : Molecules to Mankind*(pp 3-12). Britain : Macmillan Press Ltd.
- Ellia, C., & Jacobs, D. F. (1993). The incidence of pathological gambling among Native Americans treated alcohol depen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28, 659-666.
- Gilvoch, T. (1983). Biased evaluation and persistence in gamb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 1110-1126.
- Golin, K. J. (2001). *The Role of Gambling, Risk-taking, and Cognitive Bias in Computer Trading*. Hofsta University.
- Herscovitch, A. G. (1999). *Alcoholism and Pathological Gambling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lorida : Learning Publications, Inc.
- Jacobs, D. F. (1987). A general theory of addiction : Application to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lanning for pathological gamblers. In T. Galski(Eds.), *The Handbook of Pathological Gambling*(pp 169-194), Springfield, Illinois : Charles C Thomas.
- Knowles, E. S. (1976a). Risk motivation in hypothetical and real betting situation. In W. R. Eadington(Ed.) *Gambling and Society :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Subject of Gambling*.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 Knowles, E. S. (1976b). The risk-taking questionnaire(RTQ) used to assess risk approach motivation. In W. R. Eadington (Ed.) *Gambling and Society :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Subject of Gambling*. Springfield, Illinois : Charles C Thomas.
- Knowles, E. S. (1976c). The relationship of risk motivation to the subject assessment of risk and the preference for risk. In W. R. Eadington(Ed.) *Gambling and Society :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Subject of Gambling*. Springfield, Illinois : Charles C Thomas.
- Knowles, E. S., Cutter, H. S. G., Walsh, D. H., & Casey, N. A. (1973). Risk-taking as a personality trai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 123-129.
- Kuley, N. B. (1986). *Avoidance Learning in Pathological Gamblers : A Test of Optimal Arousal Theory*. Sandiego :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Kusyszyn, I. (1990). Existence, effectance, esteem : from gambling to a new theory of human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 25, 159-177.
- Ladouceur, R., Sylvain, C., Letarte, H., Giroux, I., & Jacques, C. (1998). Cognitive treatment of pathological gambl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1111-1119.
- Ladouceur, R., & Walker, R. (1996). A cognitive perspective on gambling. In P. M. Salkovskis (Ed), *Trend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pp. 89-120). NY : John Wiley & Sons Ltd.
- Lesieur, H. R. (1984). *The Chase : Career of the Compulsive Gambler*. Rochester, Vermont : Schenkman Books, INC.
- Lesieur, H. R., & Blume, S. B. (1987). The south oaks gambling screen (SOGS): A new instru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pathological gambl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1184-1198.
- Lyons, J. C. (1985). *Differences in Sensation Seeking and in Depression Level between Male Social Gamblers and Male Compulsive Gambler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Moore, S. M. & Ohtsuka, K. (1999). Beliefs about control over gambling among young

- people, and their relation to problem gambl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3, 339-347.
- Petry, N. M., & Casarella, T. (1999). Excessive discounting of delayed rewards in substance abusers with gambling problems. *Drug & Alcohol Dependence*, 56, 25-32.
- Powell, J., Hardoon, K., Derevensky, J. L., & Gupta, R. (1999). Gambling and risk-tak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Substance Use & Misuse*, 34, 1167-1184.
- Raghunathan, R., & Pham, M. T. (1999). All negative moods are not equal : Motivational influences of anxiety and sadness on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9, 56-77.
- Stolz, T. (1990). *Cognitive Factors in Pathological Gambling*. Hofsta University.
- Streets, M. L. (1990). *A Comparison of Pathological Gamblers and Alcoholics*. Reno, Nevada : University of Nevada, Reno.
- Toneatto, T. (1999). Cognitive psychopathology of problem gambling. *Substance Use and Misuse*, 34, 1593-1604.
- Vitaro, F., Arseneault, L., & Tremblay, R. E. (1997). Dispositional predictors of problem gambling in male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1769-1770.
- Waters, L. K., & Kirk, W. E. (1968). Stimulus seeking motivation and risk-taking behavior in a gambling situation.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8, 549-555.
- Zuckerman, M. (1985). Biological foundations of sensation seeking temperament. In J. Strelau, J., Farley, F. H., & Gale, A.(Eds). *The Biological Bases of personality and Behavior : Theories, Measurement Techniques and Development*, 1, 97-113. Washington, D. C. : U. S. Hemisphere.
- Zuckerman, M., Bone, R. N., Neary, R., Mangelsdorf, D., & Brustman, B. (1972). What is the sensation seeker? personality trait and experience correlates of the sensation 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308-321.

원고 접수: 2004년 11월 19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12월 1일  
게재 결정: 2004년 12월 8일

# The Relationships Among Risk-taking, Gambling Motives, and Gambling Severity

Paul Kyuman Cha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Heung Pyo Lee

Addiction Counseling Center, Korea Racing Associ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risk-taking personality trait on gambling severity and gambling behavior in terms of gambling frequency and to find out if a risk-taking personality trait and gambling motives can differentiate social gambling from problem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 from pathological gambling. The participants were 240 university students and 239 gamblers who were participating in legal and illegal gambl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isk-taking personality trai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gambling severity, and the risk-taking tendencies of pathological and problem gamblers were stronger than that of social gamblers. Differences in risk-taking tendencies was not observed between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ers. Excitement and monetary motives were the unique indicators for differentiating pathological gambling from problem gambling. However, the discriminating power of the risk-taking personality trait was not significant. It was suggested that motives such as pursuit of monetary gain or stimulation seeking have stronger effects than the risk-taking trait in terms of explaining pathological gambling behavior.

*Keywords* : risk taking, gambling motive, gambling severity